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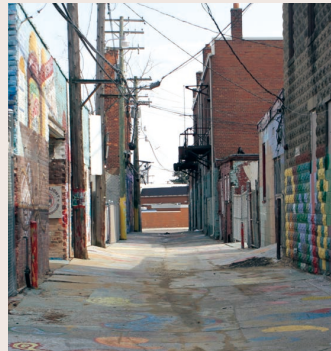
## 디트로이트, 근린 골목 활성화 시범사업 'Arts Alleys Initiative' 발표

<https://detroitmi.gov/news/mayor-duggan-and-detroit-ace-announce-plans-activate-neighborhood-arts-alleys-around-city>

디트로이트 예술, 문화 및 기업가정신 사무국(Arts, Culture, & Entrepreneurship Office: ACE)은 지난 7월 27일, 상업 및 주거시설에 위치한 근린 골목 활성화를 위한 'Arts Alleys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Arts Alleys Initiative는 디트로이트 시장 마이크 더건(Mike Duggan)이 추진하는 'Blight to Beauty' 캠페인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역 개발 및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디트로이트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을 통해 30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2년 동안 약 2,000개에 달하는 골목을 정비해왔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수행해 온 덩불, 쓰레기 등을 치우는 골목 정화 작업과 예술 활동 기반의 커뮤니티 그룹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CE는 도시 전역에 위치한 Jefferson Chalmers, Old Redford, Schulze, NW Goldberg, Springwells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올해 가을까지 거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조경,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골목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디자인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회사 사이드워크 디트로이트(Sidewalk Detroit)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 참여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지역 내 발생하는 국지적 홍수를 대비하고,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Arts Alleys Initiative 프로젝트 전후 예상 모습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 후

출처: 디트로이트시 홈페이지. <https://detroitmi.gov/news/mayor-duggan-and-detroit-ace-announce-plans-activate-neighborhood-arts-alleys-around-city>(검색일: 2022.9.6.)

\* 실업급여 연장, 세금공제 연장, 지원금 지급 등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침체를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위해 제정됨